

# 생태·농촌체험, 휴식까지 '한 번에'

자연을 느끼고 농촌체험과 휴식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익산 농촌체험마을이 촌캉스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농촌생활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가족 중심의 개별여행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5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선 익산시는 지역의 농촌체험휴양마을 10곳을 중심으로 자연경관과 농촌체험을 활용한 힐링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자연 속 생태체험 즐기는 금강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산들강용포마을과 성당포구마을, 용머리고을, 두동편백마을 등 금강지역에 분포돼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자연 속 생태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두동편백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편백 나무숲에서 즐기는 피톤치드 산림욕과 자연과 함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숲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편백나무와 주변 경관이 조화를 이뤄 휴식공간으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전북 숲세권 9선에 선정된 곳이다.



이와 함께 고구마 등 각종 농산물 수확 뿐 아니라 피톤치드를 활용해 입욕제를 만드는 체험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산들강용포마을에서는 농촌 생활부터 자연생태체험까지 자연 속에서 즐기는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하다.

용포 특산물인 블루베리를 활용한 효과와 영양 주먹밥 만들기 체험 등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먹는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성당포구마을과 용머리고을에서는 시원한 강 바람을 따라 자전거와 함께 바람개비길을 걸을 수 있으며 농악체험과 떡 만들기, 농산물 수확 체험 등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색 체험들이 운영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용안생태습지공원은 살아 숨 쉬는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 ▲미륵산 자락으로 떠나는 힐링여행

미륵산지가 위치한 삼기면에 자리 잡은 미륵산권역 죽청대파니, 풀빛향기송정마을도 눈에 띄는 곳이다.

미륵산권역과 죽청대파니마을에서는 지역농



산들강용포마을 등 금강지역 분포 휴양마을서 생태체험 경험할 수 있어

미륵산권역·죽청대파니 등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힐링의 시간 제공

여산 수은마을서 색다른 수확체험 성당포구 등 3곳 마을서 수영장 운영도



산물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백제 의상입어보기, 고구마 함박스테이크, 두부만들기, 천연염색과 천연비누, 압화, 디퓨저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음을 치유



하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천호산과 용화산으로 둘러싸인 여산 수은마을은 안파와 참외, 멜론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어 계절마다 색다른 수확체험을 즐길 수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성당포구와 산들강용포, 용머리고을 등 3곳 마을에서는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3명이 상시 배치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예약제로 관광객을 받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맞춤형 개별여행지로 농촌관광이 떠오르고 있다"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